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12시
금요일예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주일에배 7시30분
수요일예 (지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7월 20일 (제751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 않은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셨어도 그 때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부유케 하셨을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며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역시 그 당시보다 훨씬 많다. 최악에 놓린 자들이야 일러무엇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셨다. 대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하게 하셨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게 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21세기의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는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을 행하신 것에 비해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에 하신 말씀이라 사료된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욱 복된 자다. 21세기인 지금,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느끼도록 하라.

‘나’ 보다 먼저 ‘우리’ 를 생각하라

지구 반대편 남미의 날씨가 늘 더웠던 기억밖에 없어서 겨울이라는 이 선교사의 말이 신기하게 들렸는데, 막상 와보니 모두가 두꺼운 점퍼나 스웨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우리에겐 약간 선선한 기운이 저들에게는 땀까지 차가운 날씨라니 말이다.

파라과이(Paraguay)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루트가 있다. 먼저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내려 차로 6시간을 달리는 루트와 아르헨티나(Argentina)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포사다스(Posadas)까지 가서

긴 여정에 지친데다 또한 시차를 잘 조절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는 바로 파라과이로 건너가 좀 쉬려했지만, 루벤 목사는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전에 LA에서 설교를 가볍게 여기다 눈이 터진 적이 있다. 그 때 한번 두드려 맞은 이후로 설교해달라는 곳이 있으면 도저히 마다할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의 종 아닌가.”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 목사님은 ‘우리’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파라나(Parana) 강은 온통 붉은 황토 빛이었다. 국경 통과시간이 길어지는 중에 목사님은 차 안에서 이 선교사에게 도시 청소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셨다. “내가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서도 ‘자미르’라는 국영 텔레콤 부회장에게 제안했던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그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의식개혁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고, 교회를 알리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전에 한국에서 YMCA가 했던 일이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좋은 모범사례가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는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성도들

차로 국경을 넘는 루트다. 2002년 첫 집회 때를 제외하고는 늘 두 번째 루트를 따랐다. 그러다보니 포사다스를 자주 찾게 된다. 지난 2003년, 처음 포사다스 집회를 했을 때만 해도 루벤(Ruben)목사 부부와 공향에서 작별한 후, 목사님은 “이제 저들과 헤어지면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서 그 후 이 선교사가 파라과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우리가 거의 매년 가다시피 하니 역시 그들 부부도 거의 매년 만나고 있다. 그곳에 갈 때면 꼭 그들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늘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는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 가족, 나보다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말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자세, 내가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자세, 바로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철학, 우리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3일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국경을 통과하는 다리에서 보이는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한번 이 일에 앞장서보자. 반드시 이 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선교사는 매주 월요일 청소운동을 전개할 테니 목사님이 앞장 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당일 빗자루와 쓰레받기 200개를 주문하였다.

이튿날에는 TV방송 설교가 계획되었다. 지난 2010년 방문 때 국영TV 방송설교가 큰 반향을 일으켜 재방송까지 한 사례가 있을 만큼 방송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목사님은 사활을 걸고 일할 테니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라과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



2시간 생방송 TV 방송 좌담회



아르헨티나 포사다스 예수중심교회 방문



권세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3:1~7)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던 원치 않던 단체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교회, 국가 등, 단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하(上下)관계, 주종(主從)관계가 어디에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최고의 지혜는윗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롬13:1).

‘권세자’들이란 누구냐? 자식에게는 부모요, 학생에게는 스승이요, 젊은이에게는 연장자이며, 회사에서는 상사이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롬13:1). 크든 작든 권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세자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13:2).

성경은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에게는 칼이 있으며, 그 칼이 품이 아니라고요(롬13:4). 복종하지 않을 시에 그 칼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받은 권세요, 가진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경찰이 다가와서 면

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드개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왕이 아각 사람 합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에3:1~4). 발단은 모르드개가 권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만에 권세자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이는 하나님의 예정, 곧 섭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르드개가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이 베여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왕인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비판한 것이 되는 것이기에 그를 죽인 것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의 말이 옳기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막6:20), 결국 그는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 한나라 개국 공신인 주아부(周亞夫)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병법을 통달하고 군대의 통솔에 능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를 모셨는데, 문제의 뒤를 이어 경제

가 왕이 되었을 때 주아부는 승상으로 발탁될 만큼 왕인 경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아부가 사사건건 왕인 경제와 부딪혔습니다. 처음 몇 번은 경제가 승상인 주아부의 간언을 받아들였지만 마침내는 주아부의 건의를 묵살하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이를 두고 후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아부가 몰랐던 사실은 나라와 임금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와 군주, 회사와 사장, 교회와 목사가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나라를 위해 진언한다고 한 것이 결국 군주 개인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

사를 위한 말이지만 사장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아무리 목사라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요압이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용맹스런 용사였지만, 압살롬과 아브넬을 죽여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당 태종의 책사였던 위징(魏徵)의 말처럼, 충신(忠臣)이 아닌 양신(良臣)이 되어야 합니다. 양신은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군주가 거룩한 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손만대까지 복록을 누리지만, 충신은 자신은 물론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며 국가도 가문도 모두 멸망하고 자신만 충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긴다고 위징은 말합니다. 한 마디로 권세자에게 하는 충언도 때에 맞을 뿐 아니라 권세자의 사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를 보면 성전 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저의가 있는 물음이었지요. 실제 그들은 권세자들이라 그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먼저

통치자를 위해 향상 기도하라

오니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이는 세상법도 준수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고, 권력자의 말에 순종함을 손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권력자보다 더, 아니 가장 높은 권세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관원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행5:29).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단6:4).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기에 그가 어긴 것입니다. 또한 양심에 비추어 아니다 싶은 것은 따르면 안 됩니다(롬13:5). 상전이 돼지머리에 절하라 하는 것, 나쁜 일을 도모하자는 것 등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엨6:1), 일터에서는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엨6:5), 어른들께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벨전5:5), 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후2: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악법(惡法)도 법이다 법 위에 잡자지 말라

허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은 단속하는 경찰을 차에 실은 채로 달리는 큰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경찰이 엄히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권세자는 경찰입니다. 도로법을 위반하여 걸렸거든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터서의 내용을 다 아시지요? 하만의 계략이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결국 에스터의 용기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개의 조언으로 그 위협에서 벗어나 큰 구원을 얻었고, 부림절,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을 맞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에스터서를 보겠습니다.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 했을까?’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봅시다. 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Moon's Thought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올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영광, 곧 짜르 시절의 위엄을 되찾으려는 푸틴 정권의 야욕이 크림반도를 먹어치우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세계가 아무리 경고하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러시아이다. 유럽에의 막대한 가스공급처로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고는 하지만, 국제질서를 외치는 유엔의 입김도 소용없고, 각종 경제제재로 위협하는 미국이나 EU의 목소리도 힘이 부친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백성들만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파라과이 집회가 한창이던 중, 우리는 슬라바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5월에 개최하려던 모든 집회 일정이 취소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정의 불안과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드네프로 예수 중심교회에 대해 늘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해오던 터라 슬라바 목사에게 현지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려와는 달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도시 외곽만 나가도 초소들이 설치되고 검문검색이 극심하다고 한다. 또한 동부 지역에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다고 한

다. 러시아로 편입되길 원하는 슬라브 민족과 이를 제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 군과의 내전사태로 동부지역 도시들마다 참혹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슬라바 목사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 2000년 여름, 아르헨티나의 그레고리 목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세르게이 목사가 폐암에 걸려 뇌까지 전이된 상태로 수술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이다. 2001년, 그의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 고통 받고 있다고 하자 당시 목사님은 그들에게 수술비를 제공해준 적이 있었고, 세르게이 목사는 늘 우리의 방문을 그의 가족과 함께 환영해주며 슬라바 목사를 도와 일하곤 했었다. 내전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맞물려 암으로 쓰러진 세르게이 목사의 소식이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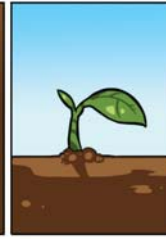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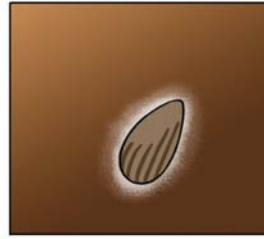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영접했었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경청했었다. 그러나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은 러시아 정교회의 압력에 결국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붉은 눈물을 떨구던 세르게이 목사의 영상이 잊히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세르게이 목사를 위하여 합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장성한 자가 되라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하지만



나무가 자라면 산을 위해 존재한다.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1965년 미국 오리건 주에 있는 유니게의 마을 회관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6·25 사변 때문에 생긴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집회를 주관한 구호단체의 회장이 나와 청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고, 그들 중 한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농부였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 법으로는 입양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마침내 국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 흔치 않은 사건은 신문을 통해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국 방방곡곡에서 돌잔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부부는 더 많은 고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아들을 직접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해리 홀트와 버디 홀트.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장 능력이 없어도,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과감히 실행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걸음을 떼고 난 때고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나름대로 신앙

아들아!

너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용돈 많이 드리는 것? 아니면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효도하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란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오래 전에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와 하소연한 얘기란다. 그 분이 칠순을 맞았는데, 자식들이 칠순잔치를 해준다고 했다는 구나. 여기까지는 뭐 문제될 것이 없지.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은 칠순잔치 대신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하고, 남은 돈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아들은 꼭 잔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들 말만 믿자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잔치도 안하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잔치를 하라는 거였지. 쉽게 말해서 남의 눈이 있으니 할 건 하자는 주의였지. 그래서 좋은 일에 말다툼을 했다고 이 권사님이 내게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더구나.

권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란다. "나름대로 효자구먼."

부모도 외국에 내다버리는 세상에 칠순잔치 해주는 자식은 분명 효자지. 그런데

부모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효자라는 말이란다. 진정한 효도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란다.

아들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란다. 요즘 나름대로 신자가 많단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말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옳은 것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란단다.

지방 집회를 다니던 시절,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나는 이렇게 말했단다. "헌금은 각자 교회에서 하세요." 멋진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나는 여겼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호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했지.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꼭 교회에 낼 필요가 있느냐며 불우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들이 있단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합당하게 보일지 모

른단다. 그는 분명히 수입의 1/10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법도 아니란다. 나름대로 십일조를 드린 게지.

요압장군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용사 중의 한 사람이었지.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게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단다. 왜 그랬는지 아니? 요압의 충성은 나름대로의 충성이었거든. 주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단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거든. 요압은 다윗이 망명책을 쓰고 있는 즈음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 및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전쟁터에서나 문둥아 할 피를 명분 없이 흘리게 했으니 다윗의 뜻을 거스른 거였던단다.

나름대로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거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朋友

::충춘, 그 아름다운 이름::

::참된 깨달음::

걱정 끊기

<일곱 살 인생>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7살 남자아이에게 고민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곤대 가는 거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랑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굶는 거요."

'맞아! 7살이면 그제 걱정될 나이이지. 어린 게 아주 뽀뽀한 고민을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들도 아마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미혼일 때는 결혼 못할까봐 걱정, 결혼하면 아이 낳을 걱정, 아이를 낳으면 키울 걱정, 아이를 키워놓으면 노후 걱정.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장 34절).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

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요.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96%는 아주 쓸데없는 것들이지요.

걱정하지 않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을 잘 안 합니다. 타고난 성격도,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100% 노력해서 얻은 결과예요. 담배를 끊는 것처럼, 술을 끊는 것처럼, 걱정을 끊어버리는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걱정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이 쪼서 고민이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슬럼프라서 걱정이면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방법을 묻고 물어서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이지요. 두 번

째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 생각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잔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끄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예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잠을 잡니다. 어떤 걱정이든지 위의 연구처럼 96%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만납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걱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습니다.

복 있는 한 해가 되자고 다짐했던 2014년, 올해가 가기 전에 '걱정 끊기'에 도전해보시지 않을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6.25동란의 휴전협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군 포로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반대하는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의 석방을 미국과 휴전협상 당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포로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었음에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자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나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나 인정과 동정 때문에 공산주의 진영을 선택한 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억압과 감시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등등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열한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면 다시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하여 자유의 품으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

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3-14).

오래전 우리나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정하고 광고가 있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한 선택은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자녀와 시원한 수박을 먹어보자

::Edu Section::

요즘 입시생들에게 암암리에 소문난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 책은 바로 <수박 먹고 대학가자>이다.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 특히 수시에 관한 정보가 수록·정리되어있는 책이다. 책 제목은 수박 먹는 여름에 수시 지원을 잘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박 먹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별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8월말~9월초에 원서를 작성하려면 고1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성적관리가 반드시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10년의 시험을 치르면서 내신 관리를 잘했다면,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알차고 내실 있게 보낸 학생들이라면, 책의 이름처럼 수박을 먹고 대학에 갈 수 있다.

물론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미래

에 이루고자 하는 꿈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대학 진학이라면, 미리 준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부모들의 몫이다.

지금 말고 있는 고3 녀석들 중에는 세상 누가 봐도 대학 근처조차 못 갈 것 같은 아이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직업학교를 찾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들에게 왜 진작 공부를 한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다가오는 시험을 대충대충 치르고 삼년의 세월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대입 시험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때늦은 모습이 안타깝고 딱딱할 뿐이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대학에 가고 싶은가? 정말 간절히 수시 입학을 바란다면, 꼭 기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성"이다. 지방의대 치기공과 수

시를 준비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고1때부터 지원할 학교와 전공을 정하고는 2년 반 동안 10년의 중간·기말고사를 철저히 대비해 왔다. 그 아이의 합격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룰 수 없는 대학·학과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무작정 공부하는 것도 좋지, 자신의 능력과 처지와 꿈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학교·학과를 찾아서 차근차근 노력하고 준비해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시원한 수박 맛을 만끽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생이 될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방학에는 자녀들과 함께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며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

어느 집사가 "전도사님 기도가 뭐예요?"하고 묻습니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댁에 심방을 갔다가 '기도는 이것이다'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 액자와 문구를 발견했거든요. 목사님께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사진과 늘 강조하시던 말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사진을 보면서 "흠이 속이지 않듯 땀방울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기도는 아름다운 문장도 청산유수 같은 말도 아닌 내 몸이 언어가 되어 울려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눅22:44)

언젠가 동네 분식점에 갔는데, 제 앞 테이블에 청년과 자매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서로 두 손을 잡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

기도는 내 몸이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몸이 땀에 젖도록, 때로는 그 청년과 자매처럼 고요하게, 때로는 소리 없는 눈물로...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요? 무엇이든 어디서든 크든 작든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지는 않거든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